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4. 7.(일) 12:00  
(지 면) 2024. 4. 8.(월) 조간

## K-주소체계,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 협의

- 4월5일(금), 몽골 토지행정청장 -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 면담
-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(MOU) 체결 협의

- 4월 5일(금),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만남을 갖고,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.
-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었다.
-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.
-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,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(ISO)에 국제표준\*으로 반영되었다.
- \* 주소 구성에 필요한 필수사항 13건, 국가마다 주소표준을 제정할 때 반영이 필요한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 국제표준에 반영
- ISO 표준으로 반영되어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,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.
- 지난해 11월, 행정안전부는 한국형(K)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, 탄자니아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다.
-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.

□ 몽골은 이러한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.

○ 그리고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(MOU) 체결도 제안했다.

□ 한편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,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,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“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면서, “한국형 주소 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	책임자	과 장	박광섭 (044-205-3551)
		담당자	주무관	신성심 (044-205-3554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## 참고1

## K-주소 해외진출 관련, 몽골 토지행정청장 접견 계획

### □ 추진 배경

- 한-몽골 간 주소체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

※ 방한목적: LX공사 글로벌사업처의 몽골 방문 시 대상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상호 협력 강화

### □ 접견 개요

- (일시·장소) '24. 4. 5.(금) 14:00~15:00 / 코엑스 무역센터 회의실

- (방 문 단) 몽골 토지행정청 앵크만라이 아난드 청장(차관급)

※ (우리측 배석) 국장, 주소생활공간과장, 지능정보팀장, 통역(LX)

- (방문목적) 몽골 토지행정청 선결과제로 추진 중인 주소 부여 현대화 사업 협력 방안 및 MOU 체결 방안 협의

- 협력방안: 주소정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논의

※ LX공사 방문 시 한국의 우수한 주소 체계구축 경험 및 기술 협력 강력 희망

### □ 세부 일정 ※ 통역: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문정훈 과장

시 간	내 용	비 고
90'	▲ 이동 (오송역 → 수서역)	■ (수행) 주소생활공간과장
30'	▲ 이동 (회의장) ※ 자가용 이동	■ (수행) 주소생활공간과장
30'	① 몽골 청장 인사 및 명함 교환 ② 인사말 및 환담 ③ 주소체계 현대화 및 MOU 제의 ④ 기념촬영 및 선물 증정	■ (장소) 코엑스 무역센터 회의실
90'	▲ 이동(수서역 → 오송역)	■ (수행) 주소생활공간과장

## 참고2

## K-주소 해외진출 관련, 몽골 토지행정청장 접견 사진

